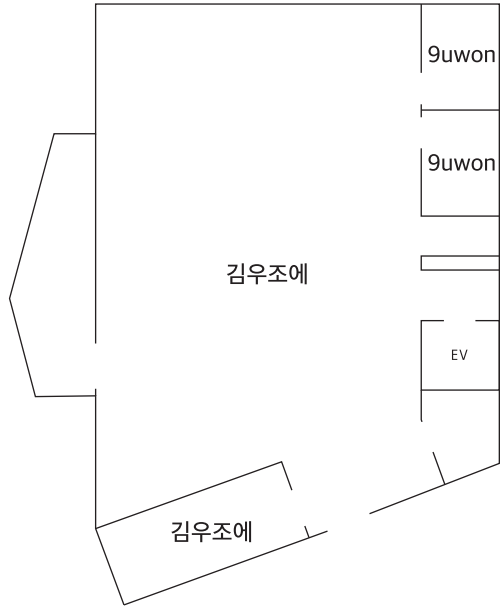


B1



9u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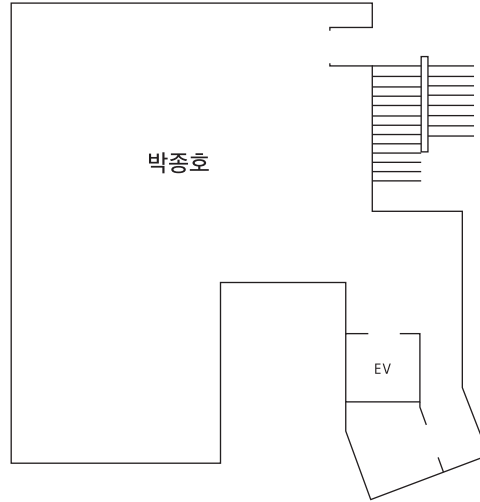
《Projection Altar | Flame Vision 영사제 (映寫祭)》

2025, 가변설치 (530x1200x1200)

steel, gear, film, hand crank, convex lens, maple, hard wood, pla, candle

<영사제>(Projection Altar | flame visions)는 영사기가 가구가 될 수 없을까? 라는 질문, 욕망에서부터 비롯된다. 영화는 언제나 장치와 공간, 즉 극장이 라는 공간과 'frame' 틀에서 경험되었지만, 여기서는 제단과 같은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다. 촛불이라는 원시적인 광원을 통해 이미지를 비추는 이 장치는, 동시에 촛대이자 가구이며 의례적 행위의 무대가 된다.이미지는 단지 기계적으로 재현되는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구축된 사물인 동시에 영화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촛불과 그 떨림, 필름과 이미지는 불안정하게 투영되며, 완결된 장면이 아니라 흔들리고 사라지는 잔상처럼 남는다. <영사제>는 영화라는 장치와 가구라는 구조 사이에서 파생된 제안이다. 제단 처럼 놓인 영사기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빛과 이미지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의례적 기계로 작동한다. 영화-이미지의 환상은 더 이상 극장 속에 갇혀 있지 않고, 거주 공간 속, 그 어둠 속에서 불안정하게 출현한다. 이 작업은 영화와 가구, 장치와 의례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영화란 무엇인가, 가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다시 꺼내 든다. 촛불 아래에서 반복과 소멸을 거듭하는 이미지들은, 결국 거주라는 가장 사적인 맥락 속에서 '영화'라는 경험이 어떻게 다시 구성될 수 있는가를 묻는다.

3F



김우조에

《Physical AI / 慕洛 / 37°23'02.1"N 126°58'21.1"E》

2026, 렉처 퍼포먼스 (50분)

지도, 이미지, 영상

박종호

Physical AI : 기업의 기술과 미래

慕洛 : 임영대군

37°23'02.1"N 126°58'21.1"E : 동탄~인덕원 복선전철 건설사업 (2015-2028) 으로 진행되어 2공구 (계원예대역) 로 예정 되어있는 장소의 좌표

작가는 금융과 기술이 현실을 담보로 구성하고 있는 사건들을 분석하고 동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심이있다. 펜데믹 이후 AI 기술과 금융이 어떤 방식으로 권력과 자본의 구조로 변모 해왔는지를 역추적하고 드론 촬영 ,도시 및 지형의 3D 재구성 ,GIS 지도를 통해 기존의 설계가 어떤 기술로 기록되고 예측되며 선반영 되는지를 시각화 한다.

《FESTOP(서운한 꼬끼리를 향해 뺨꾸!)》

2026, 시스테인너, 마크팩, 집진기 등, 가변설치

《아무것도 아닐 거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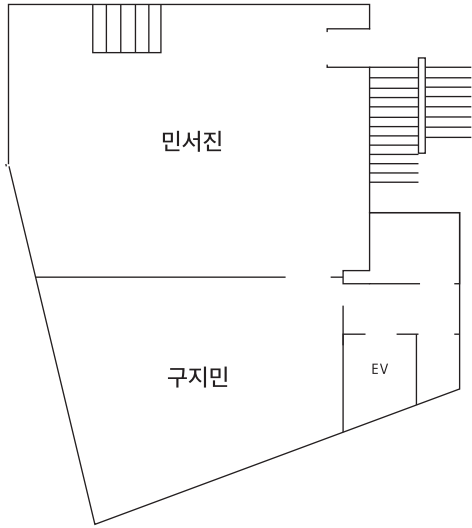
2025, 퍼포먼스(20분), 석고, 아크릴, 샌딩기, 집진기 등 가변설치

《Dream from he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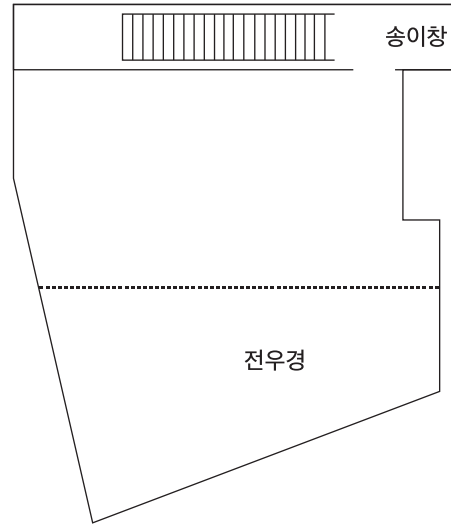
2023, 하이샷시, 하부레일, 소독티슈 뚜껑, 문어 낚시칩 등, 가변설치

작가는 미술 현장의 설치 노동자나 메이킹 어시스턴트로 활동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술과 기술, 노동과 놀이의 관계를 탐구한다. 펜데믹 이후 전시 제작 환경의 정지는 기존 공구들의 기능을 잃은 오브제로 전환시켰고, 작가는 이를 계기로 도구와 노동의 의미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마키타에서 페스틀로의 전환은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태도를 재설계하는 과정이었다. 고정밀 설계와 모듈화된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전문 공구 시스템으로, 작가는 이 체계적 구조에서 기능성과 형식성이 결합된 동시적 상태를 발견한다. 이번 전시 <FESTOP(서운한 꼬끼리를 향해 뺨꾸!)> 에서 규격화된 산업적 구조를 이용해 사회적 제스처를 구현함으로써, 기술이 순응의 도구를 넘어 놀이와 비판적 사유를 생성하는 장치로 전환되는 지점을 드러낸다.

4F



RF



전우경

《buffer》

2025, 가변설치, 레일시스템, 철조망, Par64, 엘립소이드

<buffer>는 해방촌과 미군기지가 겹쳐진 지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옥상 난간을 따라 설치되는 안테나 모양의 선형 구조물로, 관객과 전망 사이에 의도적인 완충 지대(buffer)를 형성한다. 이 장소는 해방 이후 미군정 체제 속에서 형성된 도시의 기억이 응축된 지점이지만, 관객은 보통 이 풍경을 '전망'으로만 소비한 채 빠르게 통과한다. 작품을 통해 시야를 부분적으로 차단하고 흐리게 만들며, 관객이 옥상 전망을 한 번에 소유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킨다. 이 버퍼는 가로막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더 오래 보게 만드는 장치로 작동한다. 관객은 멈추고, 고개를 기울이고, 우회하며, 시야가 흐려진 틈 사이로 해방촌의 풍경을 다시 읽게 된다. 이 작품은 팬데믹 이후 기술, 안전, 감시, 이동의 제약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보이지 않게 작동하는 장치들이' 어떻게 우리의 신체와 인식을 조율하는지를 드러낸다. 관객은 옥상이라는 개방된 장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회하거나 멈추며, 자신도 모르게 버퍼에 의해 통제되는 몸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구지민

《오하나농장 Ohana Farms》

2023, 퍼포먼스 (25분), 설치

송이창

《창 여 소동》

2026, 퍼포먼스와 필름 (15분)  
16mm 영사기, 나무판에 그림

민서진

《0.0625초의 전망》

2026, 유리컵에 전구, 나무상자에 할로겐 램프, 환등기, 슬라이드 필름, 흑백 네거티브 필름, 가변설치

《오하나농장 Ohana Farms》은 미국 서부의 황량한 땅에서 작가와 주변 인물들이 머물렀던 대마 농장의 이름이다. '오하나(Ohana)'는 하와이 언어로 '가족'을 의미하지만, 이 이름은 혈연이나 제도를 가리키기보다 잠시 유지되었다가 해체된 관계의 상태를 암시한다. 작가는 가족, 국가, 법률과 같은 기존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상상하며 그곳에 머물렀으나, 이후 귀환과 함께 그 경험은 명확한 기억으로 정착되지 못한다. 당시의 시간을 기록하던 스마트폰이 파손되면서, 그 장소와 사건들은 실제였는지 가상이었는지 쉽게 분간되지 않는 상태로 남는다. 이 작업은 클라우드에 남아 있는 파편화된 이미지와 기록을 배경으로, 정리되지 않은 기억이 현재에 반복적으로 개입하는 상태를 제시한다. 퍼포먼스는 이미 지나갔다고 여겨졌던 시간과 감각이 현재의 몸과 언어 속으로 다시 발생하는 순간들로 구성된다.

여자는 좋은 취향의 폭정 속에서 자랐다.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던 사람은 여자의 꿈이었다. 여자는 집으로 들어가 창을 바라보고 의자에 앉아 미싱기를 돌리기 시작한다. 바쁘게 몸을 돌려, 페달을 밟고 방아를 돌리면 원래의 천은 볼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박음질 된 천에는 여자의 완벽한 취향이 놓여져 있었다. 이번 작업 <창 여 소동> 은 개인만의 극장, 즉 1인 전용 극장을 구축하는 영화적 과정이다. 편집된 영상이 극장에서 상영되는 것이 아니라, 편집된 극장에서 영상이 생성된다. 미싱기는 단순한 오브제가 아닌 영화를 영사하는 기계로 등장한다. 미싱기는 영화에서 여자의 극장이자 도구이다. 이전 작업인 '장롱 극장'의 연장선에서, 극장은 영화를 위한 배경이 아니라 극장 자체가 영화가 되는 시도를 이어간다. 이번 작업에서는 미싱기와 필름 영사기의 공통된 작동 원리인 회전 운동의 반복을 결합해, 실 대신 필름이 미싱된다. 미싱기 자체는 여자의 창이 된다. 본 작업은 전시 이후 영화로 확장될 예정이며,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작업은 그 초안이다. 여자는 미싱기를 돌려 자신만의 취향과 망상을 만들어낸다. 바늘구멍으로 연결된 머릿속에서 실이 박음질 될 때마다, 지독하게 나오는 것은 여자가 흡모하는 창에 대한 집착이다.

작업은 오늘날 적어도 하나의 풍경 안에서 두 가지 이상의 현실이 존재한다는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남산타워를 중심으로 한 밤과 낮의 세계는 투사광과 반사광의 연장선 안에서 빛의 속성을 상상하게 한다.